



본 소식지는 한우자조금으로 제작되어 한우농가들에게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우자조금소식지

한우자조금

www.hanwooboard.or.kr

2015년 11 월호

포커스

한우산업 대기업 진출,
10만 한우농가 터전 잃을 것

핫이슈

11월 1일은 대한민국 한우먹는 날

한우자조금소식

화성 '한우알뜰판매장 1호점' 오픈
한우사랑 나라사랑! 독도사랑 한우사랑!

우리한우판매점 탐방_경상남도편

함안축협 한우프라자 삼칠점



목 차CONTENTS

2015년 11월호



포커스

- 03 한우산업 대기업 진출, 10만 한우농가 터전 잃을 것

핫이슈

- 07 11월 1일은 대한민국 한우먹는 날



한우자조금 소식

- 09 한우사랑 나라사랑! 독도사랑 한우사랑!
10 한우자조금, 우리 축산물 퀴즈왕 선발대회 개최
11 '홍천한우축제', '철마 한우불고기축제' 등 열려
12 한우자조금, 화성에 '한우알뜰판매장 1호점' 오픈



정보마당

- 13 한우협회소식_한우협회, 원산지 위반 19개 업소에 손배소 제기
14 조사연구_‘규모별 한우농가 효율성 제고 및 정책지원 방안 연구’ 결과
16 인터뷰_울릉군농업기술센터 이경태 계장
18 한우시황_11월 한우 관측
20 우리한우판매점 탐방(경상남도편)_함안축협 한우프라자 삼칠점
22 한우바르게알기_한우, 콜레스테롤 걱정 뚫!

독자마당

- 23 애독자퀴즈



한우산업 대기업 진출, 10만 한우농가 터전 잃을 것

대기업 진출 및 농축협 위탁사육 확대 방지 방안 모색

최근 몇 년 사이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대기업들이 축산업에 참여해 사료시장은 물론이고 사육, 유통분야까지 빠르게 진출하며 사업을 확장하고 있어, 그동안 타축종 대비 ‘계열화’ 움직임에 무관심하던 한우농가들도 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게다가 농축협이 생축장의 용도를 변경해 비육우 위주로 출하하거나 위탁사육을 확대해 나가는 데 대한 불만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기업의 한우산업 진출과 농축협 위탁사육 확대에 따른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대기업 자본, 생산 현장에 투입’ 소문 파다 되고 있다.

하림과 사조, 이지바이오시스템 등 대기업이 축산업에 진출한데 이어 동원그룹이 지난해 여름 금천을 인수하면서 한·육우산업에 대한 대기업의 진출 또한 가시화된 모양새다. 금천은 30년 이상 된 육가공업 전문기업이지만 동원그룹의 계열사인 동원팜스가 축산농가에 사료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료와 축산, 육가공으로 완성되는 계열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추측도 제기

한우산업에서 ‘계열화’란 주로 계열주체가 사료나 송아지를 제공하고 농가가 자가 시설에서 사육하는 형태로 이뤄지며 농가는 ‘임금’ 명목의 사육수수료를 받게 된다. 농업부문에서 계열화 사업이 허용된 건 1990년대부터다. 수입개방에 대비해 영세한 농가들로 구성된 우리나라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논리에서다. 그리고 2009년 이후 농지법, 축산법 등이 잇달아 개정

되면서 대기업이 실제로 축산업에 진입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대기업의 축산진출과 관련해 현장에서 감지되고 있는 움직임은 기업의 이름을 내걸지 않은 채 대기업 자본이 속속 침투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구경북도지회 조용철 사무국장은 “대기업 자본이 폐업신고를 한 농가 개개인에게 자금을 대출해 주면서 위탁영농 규모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계속 추이를 지켜보고는 있지만 법적으로 제제할 수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우농가들은 ‘○○지역에 몇 ○만두의 소를 키우고 있는 농가가 있는데 주변 평가로는 그만한 여력이 없다며 ○○그룹에서 자본을 대고 있다’거나 ‘○○그룹이 ○○영농조합법인 이름으로 한우를 대규모로 사육하고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농가들은 ‘확실한 물증을 댈 순 없지만’ 이처럼 위장형태로 한우산업에 침투한 기업자본이 상당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FTA나 TPP보다 더 무서운 대기업 자본 진출

‘한우산업에 대기업의 진출을 반대한다’고 했을 때 농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보기에 단순한 ‘규제’나 ‘밥그릇 싸움’ 쪽으로 여길 수 있지만, 한우고기라는 품목의 특수성과 한우산업의 농가구조를 들여다보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우는 우리 입맛에 맞는 우수한 형질을 가진 고유품종으로 그동안 수입산 쇠고기와 차별화할 수 있는 ‘고품질 쇠고기’의 이미지를 지켜나가고 있으며, 국민들 또한 그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다른 육류에 비해 비싼 가격임에도 큰 저항감 없이 소비하고 있다. 한우의 품질은 그냥



유지되는 게 아니다. 농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동안 쌓아온 사육기술로 매일 소와 얼굴을 마주하며 정성껏 사육하고 있기에 그만큼 품질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투입된 자본에 대해 최대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논리로 한우를 사육했을 때는 상황이 달라진다.

이와 관련 전국한우협회 황엽 전무는 “FTA(자유무역협정)의 경우 관세 인하 문제이므로 어렵긴 하지만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이라도 있는데 대기업이 한우산업에 들어올 경우 농가처럼 섬세한 관리가 안 돼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수한 성적을 올리는 농가들을 보면 소와 사람과의 친밀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대기업의 위탁농가들이 키울 경우 일제시대 소작농들이 수확에만 급급하고 토지를 보존하지 않았던 것과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다른 문제점은 한우사육기반 붕괴다. 2014년 기준 한

육우 사육농가는 10만 4천 호로 전체 축산농가 10명 중 9명이 가족농 형태로 한우를 키운다. 그런데 한우산업이 대기업 계열화에 종속될 경우 이들 대부분은 토지와 자금을 저당 잡혀 살아가는 노동자로 전락하게 된다. 건국대 윤병선 교수는 “한우산업이 계열화될 경우 농가는 판로 확보라는 장점을 얻을 순 있지만 축사시설이나 설비 등의 부담은 농가가 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경상대 장상환 교수는 “대기업이 노동자를 고용하게 되면 이들의 복지도 책임져야 하고 위험도 기업이 감내해야 하지만, 부분적으로 자본을 대는 축산 위탁사육은 그런 부담을 농가에게 떠넘기고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혜택은 기업이, 축산 비용은 농가의 몫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타 산업의 계열화 형태를 보면 위탁수수료 협상 또한 원활치 않아 생산비는 절감되더라도 농가 소득은 그대로인 경우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고, 한우산업이 호황에서 벗어나 불경기로 진입할 때 타산이 맞지 않아 기업이 철수를 하거나 외국 업체에 매각을 할 경우 ‘식량 안보’의 위협까지도 직면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대기업 축산진출 막고 한우농가를 보호하는 방안은?

그렇다면 이 같은 대기업의 한우산업 진출방안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지난 국회토론회에서도 논의된 것처럼 법적으로 아예 대기업 진출을 막거나 규제를 강화해 진입을 어렵게 하는 방법, 계열화 방식과 내용을 규제함으로써 농가들의 자주성을 유지시키는 방법 등으로 나뉘볼 수 있다.

먼저 법적 규제 방법은 2010년 폐지됐던 대기업의 축산

업 참여제한 조항을 다시 부활시키는 것으로, 지난해 김우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을)이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본회의에서 부결되고 말았다. 대기업의 진출을 어렵게 만드는 방법으로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를 농업부문에 도입해 직접 생산을 제한 또는 축소하거나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박민수의원이 영향평가서 및 농어업인 상생협력계획서를 제출케 하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일정 사육규모 이상은 기업농으로 분류해서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대기업의 축산진출 속도를 늦추는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이 “대기업은 이윤을 위해 축산을 하고 농가는 생존을 위해 하는 만큼 가축전염병으로 가축을 살처분 할 때 대기업과 농가에 주는 보상금에 차이를 뒀야 한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또한 계열화가 이뤄진 이후라면, 계열화 주체와 농가 간 합리적인 표준거래약관을 정하고 이를 이행했는지 정부기관과 농민단체가 모니터링 해서 불이행시 강력하게 제제할 필요가 있다.

농축협 위탁사육 확대, 대기업에 길 터주는 꼴

한우농가들은 농축협의 생축장 용도변경, 위탁사육 확대 역시 대기업의 계열화사업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물론 농가들 중에는 가격이 크게 오른 송아지를 입식하기 어려워 위탁사육을 자진한 농가들도 있고, 조합의 경우 브랜드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위탁사육을 늘린 측면도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규모가 너무 커졌다는 것이다. 생축장과 위탁사육을 포함해 현재 농축협에서는 6만두 정도를 사육하고 있고 이중에는 1개 단일조합에서만 6천두~1만두를 사육하는 곳도 있는데 이 경우 농협은 사료와 송아지를 대주고 농가가 키운 소

를 수매해서 판매, 유통까지 담당하면서 소 한 마리당 월 1만7천 원에서 2만 원가량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즉 소는 농가가 키우지만 소의 주인은 농가가 아닌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월에는 한우협회 전북도지회가 주축이 된 전북농민단체연합회(대표 김석준)가 ‘대기업 농업 진출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 농업 진출과 농축협의 위탁사육 반대를 촉구하기도 했다. 전북지역의 위탁사육 규모는 2만여 두에 가까워 농축협 위탁사육 비중이 가장 높은 데다 전북 지역은 하림 등 축산 계열화 기업들의 기반이기도 하다. 전북농민단체연합회는 농협이 이익을 내더라도 위탁사육 수수료를 올리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상한 교수는 “농축협이 농가에서 소를 구매해 팔지 않고 위탁생산 방식을 늘려가는 것도 일종의 계열화 방식이며 농민 지배가 심화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일진 전북도지회 사무국장도 “농협이 농민을 농업 노동자로 전락시키고 탈농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농협이 하는 방식을 대기업이 그대로 차용해 한우산업에 진출할 경우 막을 명분이 없으며, 결국 농민이 빠진 한우산업 현장에서 농협과 대기업이 싸우는 형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부 지역 농축협, 위탁에서 위탁으로 전환기로 협의 중

그렇다면 농축협의 위탁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는 것이 바람직할까? 박일진 전북도지회 사무국장은 기존 위탁사업은 한 브랜드 당 1천 두 미만의 물량 수준으로만 가져가고 현재의 위탁사육은 대부분 위탁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탁이나 위탁 모두 자본을 농



대기업 농업진출 저지와 농협위탁 사육반대
2015년 1월28일 농협중앙회 전북본부 전북도지회

협이 단다는 측면은 같지만 위탁에서 소유권은 농민이 가진다. 농협에서 농가들에게 소를 담보로 저리로 돈을 빌려주는 등 농가 스스로의 자립을 도와야 한다는 것. 또한 소와 관련된 수익 회계를 따로 관리하도록 규정을 바꿔 관련 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공평하게 재분배해야 하며 수수료 문제 또한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일진 사무국장에 따르면 전라북도의 경우 위탁사육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브랜드 유지를 위한 최소 수준의 공급물량만 확보하는 안을 놓고 농협지역본부와 긍정적인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한다. 또한 전북도 내 지역 축협의 경우, 전체 두수를 위탁에서 위탁으로 전환키로 하고 이미 실행에 나섰다고 밝혔다.

잇달아 체결된 FTA로 인해 10년 후면 시장이 완전히 개방되는 상황에서 대기업의 수직계열화와 대기업 자본의 생산기반 잠식 우려로 한우농가들의 시름 또한 더욱 깊어지고 있다. 여기에 조합원인 농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농협이 먼저 나서서 위탁사육을 늘리고 농가들을 ‘임금노동자’로 만드는 것은 올바른 사업방향이 아니다. 이와함께 한우산업의 대기업 진출은 한우농가 10만여 명의 삶의 터전이 달린 문제이니만큼 축산업계가 합심해 반드시 막아내야 할 큰 숙제라고 할 수 있다. 🍌



대한민국이 한우로 행복해지는 날

한우자조금, 한우협회 · 농협중앙회와 ‘한우의 날’ 행사 개최

전국한우협회와 농협중앙회는 11월 1일 ‘한우의 날’을 맞아 11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서울시청광장에서 대규모 행사를 진행한다. 그동안 한우의 날은 한우농가만의 축제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올해는 한우농가 뿐만 아니라 유통 및 가공업체, 그리고 국민을 아우르는 ‘삼위일체’로 하나가 되겠다는 것이 목표이다. 제8회 한우의 날이 갖는 의미를 되짚어 보자.

11월 1일은 대한민국 오천만이 한우 먹는 날

‘한우 농가만의 산업에서 한우를 전 국민의 민족 산업으로 정착시키자’는 뜻을 담은 한우의 날은 올해로 8회째를 맞았다.

올해 한우의 날은 온 국민이 함께 하는 ‘민족의 명절’로 안착시킬 계획이다. 또 중앙 단위 위주와 한우 농가 중심의 행사에서 지역 단위 행사로 확대해 ‘전 국민이 한우 먹는 날’이란 인식을 소비자에게 심어줄 방침이다.

이에 한우자조금과 한우협회는 사육농가, 소비자, 한우

취급자(판매자 또는 유통업자)가 ‘삼위일체(三位一體)’가 되어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로 제정하고 국민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소득층에게 한우를 기부할 예정이다. 한우 판매자도 할인판매를 진행해 그동안 가격 때문에 한우 구매를 망설였던 소비자들에게 ‘오늘만큼 저렴한 한우를 꼭 사서 먹겠다’는 생각을 갖도록 행사를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오랜 역사를 가진 한우, 우리 고유의 품종

한우는 다른 축종과는 차별된 ‘세계 유일의 유전자’를 갖고 있으며 맛과 영양학적 우수성 등에 대해서는 이



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지난 2006년에는 정부가 태극기, 독도, 대동여지도, 아리랑에 이어 여섯 번째로 ‘100대 문화유산’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그동안 한우자조금과 한우협회 등은 ‘이 땅위에 자존심 한우’, ‘한우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한우사랑이 나라사랑입니다’ 등의 슬로건을 내세우며 한우에 대한 국민들의 애정과 관심을 유도해 왔다.

한우자조금과 한우협회는 앞으로 국민들이 우리 한우에 대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우의 세계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우의 유래와 맛, 기능, 문화 풍속, 유물 정보 등을 수록한 ‘민족과 한우’ 책자를 한우 생산자나 유통 업자 이외에도 외부 인사들을 참여시켜 집필, 발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에게 친숙도를 높이기 위해 국내 명소에 한우공원을 조성해 한우 상징물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우의 날(11월1일)과 관련해 전국에서 한우고기 할인

판매와 한우나눔 행사도 진행된다. 강원도에서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우 육포를 나눠주며, 사회복지협의회에 곰탕을 기증한다. 충북에서는 농축협과 한우협회가 공동으로 한우시식, 한우나눔 행사를 진행하며, 충남에서는 한우농가와 지자체가 다문화가족에게 한우를 지원한다. 전북에서도 농가와 산업체가 독립유공자, 노인, 결식아동에게 한우를 전달하며, 전남에서는 10개 시군 한우농가에서 한우 기증과 나눔행사를, 경북 의성에서는 한우 반값 할인과 어르신 대상 무료 곰탕 배식, 한우나눔 행사 등을 각각 마련했다. 경남에서도 축협과 한우협회가 한우나눔과 한우사은행사를, 울산에서는 한우고기 할인판매와 한우나눔, 제주에서는 한우먹는날 기념식과 시식행사, 할인판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마트, 롯데쇼핑, 롯데슈퍼, 롯데마트, GS리테일, 홈플러스, 탑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에서도 11월 1일 대한민국이 한우먹는날을 기념해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틀 동안 등심, 국거리, 불고기(1등급 기준)를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할인판매 행사를 진행한다.

한편 11월 3일부터 4일까지 시청에서 개최되는 ‘제8회 한우의 날’ 기념식에서는 시작을 알리는 취타대 공연과 깃발 퍼포먼스, 한우산업의 발전을 염원하는 대북 퍼포먼스, 사물놀이 공연, 트로트 가수 김혜연 씨의 축하공연, 한우의 날 기념 퍼포먼스 등이 열리며, 우리 한우의 우수한 맛을 알리고 따뜻한 정을 나누는 ‘한우 불고기 덮밥 배식’도 진행된다. 부대행사로는 브랜드 한우 할인 이벤트, 전국 8도 대표 한우 브랜드가 참여하는 직거래 장터도 마련될 예정이어서 소비자들은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한우를 구매할 수 있다. 🍲



한우사랑 나라사랑! 독도사랑 한우사랑!

독도 경비대에 1년간 한우고기 무상 지원키로

“건네주신 한우는 우리 땅 독도를 빈틈없이 지키라는 한우 농가의 격려로 알고 경계근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근수)와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는 지난 25일 독도의 날을 맞이하여 ‘독도 바르게알기운동본부’와 함께하는 ‘독도 바르게 알고 사랑하기’ 캠페인에 동참해 독도 경비대에 1년 간 한우고기를 무상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이날 오후 한우자조금 및 전국한우협회 임원과 한우농가, 해병전우회, 초중학생 등 100여 명은 독도 경비대에 한우를 전달하기 위해 독도로 출발했으나 기상 악화로 독도에 접안하지 못해 되돌아왔다.

한우인들은 선상에서 독도 땅을 밟지 못한 아쉬움을 달

래며 ‘독도사랑 한우사랑!’의 퍼포먼스와 독도사랑 티셔츠 입기 행사에 동참해 독도 수호 의지를 다졌다.

독도경비대에 전달하기로 한 한우는 26일 울릉경비대에 대신 전해주는 것으로 행사를 마감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이근수 위원장은 “우리의 역사와 혼을 지닌 독도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고군분투하고 있듯이,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한 대표 축산물 한우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캠페인에 동참하게 됐다”며 “한우고기 전달을 통해 독도 경비대들의 사기 증진은 물론이고 민족유산으로서 지켜야 할 독도와 한우의 중요성, 소중함을 온 국민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앞으로 축산물 퀴즈왕으로 불러 주세요”

‘우리 축산물 퀴즈왕 선발대회’ 열려… 한우 시식회부터 마술쇼까지

학부모들의 열띤 응원 속에 어린이들이 축산물에 대해 공부한 실력을 맘껏 뽐내는 ‘우리 축산물 퀴즈왕 선발대회(이하 퀴즈왕 선발대회)’가 진행돼 아이들과 학부모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근수)가 주최하고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허영)과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주관한 ‘제6회 우리 축산물 퀴즈왕 선발대회’가 10월 11일(일) 경기도 과천시민회관 대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퀴즈왕 선발대회는 향후 한우 소비자로서 자라날 초등학교생들이 우리 한우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 우수성을 스스로 배우게 하고자 기획됐으며, 온라인 예선전을 뚫고 올라온 초등학교생과 현장 예선을 통해 선발된 초등학교생이 참가해 한우 지식 대결을 펼쳤다.

이날 대회에서는 결선 무대인 ‘파이널라운드’에서 출제된 10문제를 모두 맞힌 김나현(인천 굴포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가 대상에 선정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으며, 부상으로 최신허 노트북이 지급됐다. 김나현 어린이는 “퀴즈왕 선발대회를 준비하며 우리 축산물에 대해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대상을 받게 돼 매우 기쁘다”며 수상 소감을 전했다.



또한 최우수상 2명에게는 각각 축산물품질평가원장상, 전국한우협회장상과 함께 최신허 태블릿 PC, 우수상 3명에게는 축산물품질평가원장상(1점),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장상(2점)과 더불어 디지털카메라가 부상으로 수여됐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인기 개그맨 정승환 씨와 아나운서 김진주 씨가 사회를 맡아 대회를 매끄럽고 재미있게 진행했으며, ‘쿠킹매직쇼’, ‘한우 불고기 시식회’, ‘축산물 전시 및 포토월’, ‘전문가의 건강식습관 상담 및 성장 클리닉’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가 마련돼 참가 어린이부터 학부모는 물론 과천 시민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홍천한우축제



철마 한우불고기축제



전국 방방곡곡 한우축제, 먹거리 즐길 거리 풍성

‘홍천한우축제’, ‘철마 한우불고기축제’ 등 열려

한우농가에서 정성들여 키운 소도 맛보고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한우축제가 대한민국 곳곳에서 펼쳐졌다.

10월 한 달간 횡성한우축제와 홍천한우축제(7~11일), 광양숯불구이축제(8~9일), 봉계한우암소불고기축제(9~11일), 철마 한우불고기축제(15~18일) 등 다양한 한우축제가 전국에서 개최돼 소비자들의 오감을 자극했다.

강원도에서 지난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 동안 ‘제13회 강원·홍천 인삼·한우 명품축제’가 대규모로 진행됐다. 연휴를 맞아 축제를 즐기기 위해 각 지역에서 20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축제는 한우와 인삼의 궁합이 잘 맞다는 데서 착안해 ‘건강하삼(蔘), 홀룡하우(牛)’라는 주제 하에 홍천의 맛 있고 건강한 명품축제로 치러졌다.

축제는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풍성했다. 한우협회 강원도지회에서 진행한 ‘불고기 시식회’, ‘한우 OX 퀴즈’, ‘물 랫게임’은 어린이부터 성인 등 많은 사람들의 참여로 호

응이 높았으며, 부대 행사로 ‘한우 부위별 노래 부르기’, ‘안심한우 깜짝경매’, ‘한우 부산물 퍼가기’, ‘인삼 낚시’ 등이 마련됐다.

부산 기장군 철마면의 장전천 들녘에서는 15일부터 18일까지 ‘제9회 철마 한우불고기축제’가 진행돼 지역주민은 물론 수많은 관광객이 방문해 한우 축제를 즐겼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근수)와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가 주최하고 철마 한우불고기축제 추진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축제에서는 한우 불고기, 곰탕 등의 무료 시식 행사가 마련됐으며, ‘한우 먹거리장’에서 관람객들이 한우 고기를 시중가보다 20~40% 저렴한 가격에 구매해 직접 축제 현장에서 숯불에 구워 먹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행사 주최 측은 축제 기간 중 한우 국밥을 무료로 맛볼 수 있는 시식권 8,000명분을 대한노인회 기장군지회에 전달해 온정이 넘치는 지역화합의 장을 만들었다. 🍲

“1인당 2만 원으로 고급 한우 맘껏 즐기세요”

한우자조금, 화성에 '한우알뜰판매장 1호점' 오픈



유통단계를 줄여 생산자가 직접 공급한 한우를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한우알뜰판매장'이 경기도 화성에서 첫 선을 보이면서 한우 농가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길이 열렸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근수)는 완주한우협동조합(이사장 조영호)과 함께 품질 좋은한우를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기 위해 지난 23일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에 '한우알뜰판매장 1호점'을 정식 오픈했다. 매장의 한우 판매 가격을 살펴보면 1등급의 등심은 100g당 7,500원, 채끝·부채·치마살 8,170원, 갈비살 12,000원, 특수부위(토시살·안창살·살치살) 13,330원으로 시중보다 저렴하다. 1인당 2만 원이면 질 좋은 한우고기를 배불리 먹을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우알뜰판매장에서는 불고기, 국거리, 장조림, 양지 등을 100g당 3,000원대로 판매해 매장에서 한우를 맛보는 것 외에도 소비자들이 파격적인 가격에 한우를 구매할 수 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이근수 위원장은 “한우알뜰판매장은 한우 농가의 향후 생존권을 가름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자체와 한우 농가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며 “그동안 가격부담 때문에 한우 먹을 기회가 많지 않았던 소비자들을 위해 벌인 사업인 만큼 한우알뜰판매장에 대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축사에서 전국한우협회 김홍길 협회장은 “한우알뜰판매장과 같은 직영 매장이 있어야 소비자들이 부담 없이 한우를 즐길 수 있다”며 “한우알뜰판매장이 한우 농가와 소비자 사이에서 완충작용을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한우알뜰판매장 개설사업'은 한우 산지가격과 소비자 가격 연동을 통한 합리적인 가격 형성을 목표로, 서울 및 수도권에 정육점형 식당을 통해 저렴한 한우 판매장을 개설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한우자조금은 지난해 9월부터 전북완주한우협동조합을 사업자로 선정해 매장 개설을 추진해 왔다. 🍲



“한우 생산 농가와 소비자의 피해 막겠다”

한우협회, 원산지 위반 19개 업소에 손해배상 제기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접수함에 따라 소고기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전상곤 경상대 교수가 발표한 ‘원산지 허위 및 미표시로 인한 한우 생산자 피해 산정’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우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연간 4,039억~6,832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위반 업소에 대한 처벌 금액이 적고 추가 제재가 없어 정부가 단속을 하더라도 근절되지 않고 반복돼 왔다.

이번 소송은 소고기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미표시, 혼동 표시한 업소 중 수도권 내 19곳을 대상으로 각

2,000만 원씩 총 3억8,000만 원의 배상액을 청구하는 민사상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정부가 원산지 위반 업체를 적발한 후 형사 처벌한 경우는 있었지만 농가들이 직접 소송을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소비자와 한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제도가 반드시 정착돼야 한다”며 “이번 소송을 계기로 한우의 부정유통 사례를 근절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우협회의 법률 대리인 권준호 변호사는 “우선 19개 업체부터 시작하는 것이며, 소송금액이 소액이라도 승소 이후 순차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우 사육규모별로 생산비 절감 전략 다르게 써야

‘규모별 한우농가 효율성 제고 및 정책지원 방안 연구’ 결과

한우농가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사육 두수에 따라 생산비 절감 방식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근수)가 건국대학교 정경수 교수팀에게 의뢰한 ‘규모별 한우농가 효율성 제고 및 정책지원 방안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두 미만 농가는 ‘자가 노동비 절감’, 20~50두 미만과 50~100두 미만 농가는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관리 시스템의 구축’, 100두 이상의 농가는 ‘사료비의 절감과 고급육 품질의 안정적인 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한우농가의 규모별 효율성과 수익성 등 경영성과를 분석, 향후 한우농가를 규모별로 육성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번식우 농가, 자가 노동비 절감 및 생산관리 체계 정립 필요

연구진이 번식우 농가의 효율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두 미만 농가의 경우는 자가 노동비를 절감하는 것이 생산비를 줄이는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나타났다. 현재 농가의 자가 노동비가 높은 이유는 고령화로 인해 노동시간을 과다 투입하고 있기 때문인데, 생산비를 절감하려면 젊은 후계 한우농가를 적극적으로 양성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농가 규모별로 보면 20~50두 미만 농가와 50~100두 미만 농가의 경우 사육두수는 증가했지만 아직 생산 관

리 체계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라며, 생산비를 절감하려면 안정적인 생산기반과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연구진은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100두 이상 농가는 다른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산성 측면에서 우위에 있기 때문에 생산비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하면서도 무엇보다 사료비를 절감하고 고급육의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비육우 농가, 자가 노동비 절감 및 사육기술 향상시켜야

연구진은 비육우 농가에 대해서도 번식우와 마찬가지로 20두 미만 농가에서 가장 효과적인 생산비 절감 방법은 자가 노동비를 줄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사육기술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간편한 농기구를 개발하는 것도 생산비 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20~50두 미만 농가와 50~100두 미만의 비육우 농가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대규모 단계로 이전하는 것이 생산비 절감에 도움이 되지만, 이 과정에

서 정부의 지원과 안정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100두 이상 농가의 경우 현재 가장 효율적인 생산이 가능한 그룹으로 볼 수 있지만 비육 사료를 대규모로 수입해야 하는 만큼 생산비 지출이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사료비 절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연구진은 ‘한우농가 정책 인식조사’를 취합한 결과, 모든 농가에서 필요한 정책으로 ▲사육기반 확충 ▲경쟁력 제고 ▲수급 및 가격안정 등이라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소규모 농가의 경우 ‘사료가격 지원’과 ‘FTA 피해보전 직불제’ 등과 같이 직접적인 금융지원 형태의 정책이 가장 시급하며, 대규모 농가는 한우사육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관련 기관의 제도적인 지원과 고급육 출하 지원, 가축개량, 브랜드 경영체육성, 축사시설 현대화 등을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우자조금 홈페이지 조사연구 자료실에 게재된 연구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





“육질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일품인 우리 ‘참소’를 아세요?”

울릉군농업기술센터 이경태 계장

울릉도의 특산물은 오징어와 호박엿이지만, 육질이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일품인 ‘참소’가 빠질 수 없다. 참소는 일반인들에게도 생소하고 우리나라에서 귀한 품종으로 찾아보기 어렵지만, 2006년부터 참소특화단지 조성된 울릉군에서 현재 300두의 참소가 사육되고 있다. 울릉군 한우농가를 지원하는 울릉군농업기술센터의 이경태 계장을 만나 오랜 역사를 우리 민족과 함께해온 참소에 대해 알아봤다.

일제시대 ‘모색통일’ 정책으로 황소만 남아

1399년 발간된 우리나라 최초의 의학서 ‘우의방(牛醫方)’에는 ‘리우(참소)의 이마가 황색이면 기르는 주인이 기쁨과 경사가 많이 생기고 다른 가축이 잘 자라며, 재화도 많이 생겨 길하고 이롭다’고 명기돼 있다.

고려시대에 한우는 황소, 참소(얼룩소), 흑소, 백소 등 9종이었다. 1900년대 초까지는 참소를 흔히 볼 수 있었지만, 1920년대에 일본의 모색통일(毛色統一) 정책(일본 소는 검정소, 한국소는 누렁소)과 일본화우 개량사업, 군수물자로 활용하기 위해 한우가 일본으로 대량 반출됐다. 해방 후에도 일제가 정해놓은 기준이 그대로 이어지면서 1970년에 개정된 ‘한우심사표준’에서도 황

소만을 한우로 규정했다. 이처럼 선택적 한우개량사업을 거치면서 칩소는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됐다.

울릉군농업기술센터 이경태 계장은 “칩소의 경우 외형이 황갈색 바탕에 호랑이와 비슷한 검은색 줄무늬가 있다고 해서 범소, 호반우, 얼룩소라고도 부른다”며 “태어났을 때에는 무늬가 없다가 3개월이 지나면서부터 얼굴부터 털 색깔이 변해 칩소 본연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소개했다.

이런 ‘남다른’ 외모 때문에 칩소의 수난은 2000년대 초까지 이어졌다. 털 색깔만 보고 홀스타인의 교잡우로 오인받기도 했고 혼돈을 준다는 이유로 그동안 한우품평회에서 낙선되거나 도매시장에서조차 낮은 값에 경락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농가 대부분이 사육을 포기함으로써 사육두수가 현재와 같이 크게 줄었다는 게 이경태 계장의 설명이다.

이 계장은 “1990년대 후반부터 칩소를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본격화됐고, 최근에는 정부의 전통유전자원 보존 정책으로 관심을 받으면서 지난 2005년부터 경상북도의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으로 칩소 특화단지를 울릉군에 조성해 현재 30농가에서 300여 두의 칩소를 사육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릉도에서 산야초 먹고 자란 ‘약소’

울릉 칩소는 2013년 8월 슬로푸드국제본부의 ‘맛의 방주(Ark of Taste)’ 목록에 등재되면서 더욱 관심을 받고 있다. 이경태 계장은 “칩소는 일반 한우와는 달리 울릉도 청정지역에서 자라는 산야초를 먹고 자랐다고 해



서 약소 또는 울릉약소라고 부른다”며 “부지깽이 나물을 비롯해 쫄, 씬바귀 등을 먹고 미네랄이 풍부한 해양심층수를 마시며 자라기 때문에 육질도 좋고 고소한 맛을 지녀 외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전했다.

이경태 계장의 설명처럼 울릉군 청정 지역에서 자란 칩소는 명절 때 서울의 특정 백화점에 공급돼 고가의 선물 세트에 판매되는데 금세 절판될 정도로 인기가 많지만, 아직은 외지에 공급되는 물량이 적은 편이다.

울릉군에서는 우리나라의 전통 한우인 칩소를 순종으로 보존하기 위해 60두의 칩소 종축을 사육 중이며, 우량 혈통을 등록함으로써 순종 증식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경태 계장은 “사양관리부터 번식, 혈통관리 등 전반적으로 칩소 농가에게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 울릉군을 칩소만 있는 섬으로 보존하고 특화 품종으로 특성화시키는 데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울릉군 농가에서도 칩소를 귀중한 자산으로 여기고 정성들여 키우고 있는 만큼 앞으로 토종한우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오랫동안 보전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약속했다. 🍌

11월 이후 한우 도매가격 전년대비 강세 전망

사육전망

- 12월 한육우 사육 마릿수 전년 대비 감소 예상
12월 사육 마릿수 전년 동월(275만 마리)보다 감소한 266만 마리 전망

공급전망

- 11~12월 쇠고기 공급량 전년보다 감소 전망
사육 마릿수 감소로 11~12월 도축은 전년보다 10~15% 감소 전망
국내 가격 강세로 수입량 전년보다 5~10% 증가 전망

가격전망

- 11월 이후 한우 도매가격 전년 대비 강세 전망
한우고기 공급 감소로 11월 한우 1등급 도매가격 전년 동월보다 상승한 17,500~18,500원/kg(지육) 전망

[한우 1등급 도매가격 전망]

단위 : 원/지육kg (만원/600kg)

구 분	10월	11월	12월
2015년	19,353 (695)	17,500~18,500원 (627~645)	11월 대비 보합세
2014년	14,756(530)	14,388(517)	13,994(503)
평 년	14,220(511)	13,901(500)	13,856(498)



- 한우 소비자 가격 급등시 수요 감소 ⇒ 대체수요(수입육) 증가
- 국내산 쇠고기 가격 강세로 수입육 시장 점유율 확대 예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한육우 사육과 가격 동향 및 전망(10.26)' 인용]

• 10월 한우가격 및 출하 동향

* 10월은 23일까지 기준임.

* 전국경락가격: 전국 13개 도매시장 가격(원/지육kg), 결함제외 가격

구 분			평년 (’10~’14)	2014년		2015년		대비(%)	
				9월(A)	10월(B)	9월(C)	10월(D)	C/A	D/B
도축두수(두)			827,324	65,041	54,949	98,360	45,442	51.2	△17.3
경매두수(두)			379,185	33,196	29,734	46,981	25,305	41.5	△14.9
도매시장 경락가격 (원/kg)	평균		13,406	15,198	14,992	18,395	19,029	21.0	26.9
	거세우		14,569	15,714	15,392	19,386	19,747	23.4	28.3
	비거세우		10,624	11,876	12,166	14,881	13,165	25.3	8.2
가축시장 거래가격 (천원/두)	암소		3,910	4,538	4,652	5,622	5,906	23.9	27.0
	송 아 지	암	1,511	1,935	1,929	2,743	2,703	41.8	40.1
		수	2,045	2,740	2,500	3,420	3,376	24.8	35.0
불고기(1등급/kg)			32,690	34,810	34,937	39,360	40,223	13.1	15.1
등심(1등급/kg)			61,957	68,030	67,373	75,020	76,522	10.3	13.6

• 한우농가 소득 추정(10월 한우거세 도매가격 기준)

등급	도매가격 (원/kg)	가격(A) (천원/600kg)	경영비(B) (천원/600kg)	소득(A-B) (천원/600kg)
1++	21,785	7,830	4,728	3,102
1+	20,229	7,270		2,542
1	19,196	6,899		2,171
2	17,277	6,209		1,481
3	14,691	5,280		552

* 10월 23일까지 기준임.

* 경영비: 2014년 한우 비육우 경영비(4,728천원/600kg, 통계청)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 해당 기간 조회 기준임]

* 일일 한우가격동향은 「한우키우기 어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앱 다운로드방법

한우키우기 를



play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해 보세요. * 아이폰 기종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정직한 맛과 저렴한 가격으로 입소문 타는 '함안축협 한우프라자' 삼칠점

경남 함안의 칠원 천변을 따라 길쭉하게 자리한 칠원읍은 차량으로 10분 정도면 횡단할 수 있을 만큼 아담하고 조용한 곳이다. 그런데도 칠원 읍내에 위치한 '함안 축협 한우프라자 삼칠점'에는 매 저녁시간마다 손님들이 밀려와 한우를 굽는 숯불 향이 실내를 가득 채운다. 함안 축협에서 신선하고 믿을 수 있는 한우 고기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 지 8년 차. 입소문을 타고 창원, 부산, 진주 등지에서 찾아오는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는 한우프라자 삼칠점에 방문해 그 비결을 물었다.



기본에 충실하니 입소문이 손님 몰고 와

한우프라자 삼칠점은 함안 축협 삼칠지점 건물 2층에 자리하고 있다. 넓은 주차장을 갖추고 좌식 홀은 물론 의자식 룸까지 완비해 단체와 일반 손님을 모두 수용할 수 있으며 홀 내부는 항상 깔끔하게 유지한다.

매장 운영 2년 차까지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1등급 이상의 고기를 신선하고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입소문을 타면서, 3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타 지역에서까지 손님

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축협이라는 이름을 걸고 운영한다는 점, 그리고 그 믿음을 더해주는 '우리한우판매점' 마크 또한 매장 입구에 크게 걸려있다.

한우프라자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메뉴는 '갈비살'과 '아시랑 특별 모듬'인데, 이 중 특별 모듬은 꽃등심에 갈비살, 토시살, 치마살 등이 함께 제공돼 여러 부위를 맛볼 수 있다. 친목 모임 차 매장을 찾는 지역주민들은 물론, 주변 공단의 외국인 바이어들까지 질 좋은 고기의 여러 부위를 동시에 맛볼 수 있는 특별 모듬을 많이 찾는다.



▲ 한우프라자에서 인기가 많은 ‘아시랑 특별 모듬’

▲ 고기를 직접 갈아 반죽해 오븐에 구운 ‘아시랑 떡갈비+된장찌개’

지역사회 한우 소비 위해 다양한 메뉴 제공해

한우프라자 삼칠점은 축협에서 직접 운영하는 매장인 만큼 이문을 남기는 것에만 목표를 두지 않고, 함안 지역 내에 안정적인 한우 소비처를 마련해 한우 농가에게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런 노력의 하나로 다양한 한우 메뉴를 점심 시간대에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아시랑 떡갈비+된장찌개’ 메뉴는 직접 고기를 갈아 반죽한 후 오븐에 구운 떡갈비와, 시골 된장에 미더덕과 한우고기를 넣어 깊은 국물 맛을 내는 된장찌개가 곁들여져 나오기 때문에 점심 한 끼를 든든히 해결할 수 있다. ‘아시랑 곰탕’은 한우 부산물을 큰 솥에 하루 동안 고아 만들었으며, 계절메뉴로 제공되는 ‘소면’은 직접 뽑은 소면의 쫄깃함과 따끈하고 심심한 국물이 담백하게 어우러진 음식이다.

이외에도 국물에 밥 한 공기를 거뜬히 비벼 먹게 하는 칼칼한 육개장, 불고기를 보글보글 끓여 먹는 ‘아시랑 불고기 전골’, 그리고 육회를 듬뿍 넣은 육회 비빔밥까지 한두 번 방문해서는 다 맛보기도 어려울 만큼 다양한 메뉴를 판매하고 있다.

한우프라자는 2008년 9월 삼칠점을 시작으로 2013년에는 2호점인 군북점까지 오픈했으며, 한우 산업의 소비 선순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우프라자 삼칠점의 한 관계자는 “고기의 질과 맛으로 정직하게 승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있는 그대로 노력하는 모습을 고객에게 보여 주면 잊지 않고 계속 찾아오실 것이라 믿는다”고 자신했다. 🍲



한우프라자 삼칠점

- 주소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면 용산리 36-12
- 전화 055-586-7992
- 영업시간 오전 10시~오후 10시
- 휴일 연중무휴
- 메뉴 아시랑 특별 모듬(100g) 18,000원, 아시랑모듬(100g) 12,000원, 등심(100g) 12,000원, 갈비살(100g) 14,000원, 안심+채끝살(100g) 12,000원, 차돌박이(100g) 9,000원, 아시랑 육회(200g) 12,000원, 아시랑 떡갈비+된장찌개 10,000원, 육개장 6,000원, 아시랑 곰탕 5,000원, 소면(계절) 3,000원, 육회 비빔밥 8,000원



한우프라자 군북점

- 주소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중암리 96-2
- 전화 055-585-6691
- 영업시간 오전 10시~오후 10시
- 휴일 연중무휴
- 메뉴 아시랑 특별 모듬(100g) 18,000원, 아시랑모듬(100g) 12,000원, 등심(100g) 12,000원, 갈비살(100g) 14,000원, 안심+채끝살(100g) 12,000원, 차돌박이(100g) 9,000원, 아시랑 육회(200g) 12,000원, 아시랑 떡갈비+된장찌개 10,000원, 육개장 6,000원, 아시랑 곰탕 5,000원, 소면(계절) 3,000원, 한우 물회말이 8,000원

콜레스테롤 걱정 뚫!

맛과 영양 가득한 한우 드세요

‘유병 장수시대’인 요즘, 건강하고 오래 살기 위해 식생활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심혈관질환을 유발한다고 알려진 콜레스테롤이 부담스러워 동물성 지방의 섭취를 피하는 사람이 많은데 한우고기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혈액 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불포화지방산을 다량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우고기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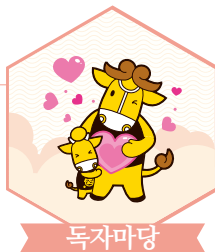
사람들은 마블링이 좋아서, 식감을 즐기기 위해 한우고기를 먹는다. 그런데 한우고기를 먹으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갈까? 정답은 당연히 ‘그렇지 않다’이다. 콜레스테롤 수치에 영향을 주려면 매우 많은 양의 한우고기를 지속적으로 먹어야 하는 조건이 따른다. 한우고기와 같이 양질의 단백질 식품을 즐겨먹으면 영양상태가 좋아져 혈관이 튼튼해지고 뇌혈관에 충분한 영양이 공급돼 오히려 뇌졸중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한다.

또한 ‘포화지방의 비율이 높은 동물성 지방은 혈관내벽에 침착해 각종 심혈관계 질환의 원인이 된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한우고기의 단백질은 오히려 고혈압 예방에 효과가 있다. 동물성 지방이 된다는 생각은 섭취와 이로 인한 콜레스테롤이 뇌졸중을 포함한 심혈관계 질환의 원인이 된다는 생각은 비만한 사람들이 많은 미국에서나 통하는 얘기다.

풍부한 올레인산이 맛과 영양, 콜레스테롤까지 잡는다

‘포화지방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속속 보고되는 것도 설득력을 더해준다. 고기 포화지방의 95%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스테아르산’, ‘팔미트산’, ‘라우르산’인데 스테아르산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불포화지방산인 올레산으로 전환된다.

한우고기에 가장 많이 들어 있는 지방산은 단가불포화지방산인 ‘올레인산’이다. 이 성분은 사람의 미각을 자극해 맛을 더해주며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 그 다음으로 많이 들어 있는 포화지방산은 ‘팔미트산’과 ‘스테아르산’인데, 스테아르산은 몸에 좋다고 알려진 고밀도지질단백질(HDL)의 수치를 높여주고 인체에 해로운 저밀도지질단백질(LDL)을 감소시켜주기 때문에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효과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콜레스테롤에 대한 오해 없이 한우고기의 맛을 즐기면서 동시에 우리 가족들의 건강도 챙겨보자. 🍴



독자마당

퀴즈 QUIZ

피곤하고 나른하시죠? 잠시 휴식을 취하는 동안 B사진에서 A사진과 다른 곳 두 곳을 찾아주세요.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께는 한우자조금에서 마련한 5만 원 상당의 농산물 상품권을 드립니다.



※10월호 정답
한우글씨 / 사슴

※ 애독자퀴즈는
한우자조금 홈페이지
(www.hanwooboard.or.kr)내
애독자퀴즈 코너에
접수해 주시기 바라며,
주소 및 연락처도 반드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호 퀴즈 당첨자 (휴대폰번호 뒷번호 네자리)

지경자 8433	이상목 1161	한우주 6283
권미숙 6177	유운상 5135	장보미 9482

한우자조금 소식지 비매품

2015년 11월호 통권 제121호

발행일 2015년 11월 1일 발행인 이근수 발행처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등록번호 서초라11645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리풀 3길 20-1 (서초동) 케피아회관 2층 홍보마케팅부 우 06641 전화 02-522-3608 팩스 02-522-4314

기획·편집 (주)인포아트커뮤니케이션(02-2269-5029) 인쇄 (주)삼진P&C(02-2271-0860)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실린 기사와 사진, 그림 등은 무단으로 복제 전제할 수 없습니다.

2015년

한우사육

우수사례 공모

한우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한우사육 생산성 향상 우수 사례 발굴을 통한 농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2015년 한우사육 우수사례 공모」를 실시하오니 한우농가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① 공모부문 : 번식부문, 비육부문

② 공모대상 : 한우 50두(번식부문은 30두) 이상 사육농가(법인 제외)로써

- 번식부문 : 암소 사육두수의 60% 이상이 종축 등록(혈통, 고등)된 농가
- 비육부문 : 거세 출하두수 1등급 출현율 90% 이상인 농가

※ 종축 등록두수는 공모신청일, 출현율은 공모신청일로부터 1년간 기준

③ 시상계획

구 분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계
사 례 (점)	2	2	4	8
상금(천원)	5,000	3,000	1,000	-
총액(천원)	10,000	6,000	4,000	20,000

④ 공모일정

- 공모 기한 : 2015.11. 20(금)까지
- 1차 결과 발표 : 2015. 11월 중(개별 통보 또는 홈페이지)
- 2차 결과 발표 : 2015. 12월 중(개별 통보 또는 홈페이지)
- 최종 결과 발표 : 2015. 12월 중(개별 통보 또는 홈페이지)

⑤ 참여방법

- 작성방법 : 농협(한우종합시스템),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등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제출서류 : 공모신청서, 우수 사례, 개인정보활용 및 제공동의서
- 접수처 : 거주지 또는 목장 소재지 지역축협(지도사업팀)

⑥ 유의사항

- 심사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표절 등 결격사유 발생시 선정 취소
- 공모 수준에 따라 상금 및 수상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 응모작의 저작권은 농협중앙회,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에 귀속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상금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수상자가 부담함.

⑦ 문의사항 : 농협 축산경영부(전화 02-2080-6562 / 팩스 02-2080-6560)

한우사육 우수사례 공모전은 전국 한우농가들께서 납부하신
한우자조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